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신 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렘 6:16).

옛신앙

Old-time Faith

www.oldfaith.net

‘옛신앙’이란 옛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증거했던 신앙, 오직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에만 근거한 신앙, 오늘날 배교와 타협의 풍조에 물들지 않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04072 서울 마포구 독막로 26 (합정동) 합정동교회 김효성 목사, ☎ 02-334-8291, E-mail: oldfaith@hjdk.net

주일오전설교 | 그리스도의 일꾼들

[골 4:7]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니, 그는 사랑을 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라.

본절은 두기고에 대해 소개한다. 첫째로, 그는 ‘사랑받는 형제’이었다. ‘사랑받는 형제’라는 명칭은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임임을 보이는 아름다운 명칭이다. 주께서는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명하셨다(요 13:34). 서로 사랑하는 것은 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의 특징이어야 한다. 우리는 사랑받는 형제들이어야 한다.

둘째로, 두기고는 ‘신실한 일꾼’이었다. ‘일꾼’이라는 원어(디아코노스)는 ‘집사’와 같은 말로서 ‘봉사자, 섬기는 자’라는 뜻이다. ‘신실한’이라는 원어(피스토스)는 ‘충성된’이라는 뜻으로 봉사자에게 가장 중요한 덕이다. 봉사자는 자기 직무를 위해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한다. 맡은 자에게 필요한 것은 충성이다(고전 4:2).

셋째로, 두기고는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었다. ‘함께 된 종’이라는 말(쉬들로스)은 주 예수께 함께 복종함을 나타낸다. 교회의 모든 봉사자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된 종들이다.

[8절] 내가 저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낸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그로 너희 사정을 알게 하고(전통본문)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두기고를 골로새 교회에 보낸 목적은, 첫째 그들의 사정을 파악하고, 둘째 그들을 위로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위로한다’는 원어(파라칼레오)는 ‘위로한다, 격려한다, 권면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종들은 교인들의 사정을 파악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면해야 한다. 그들이 때때로 교인들의 위로를 통하여 힘을 얻기도 하지만, 그들의 임무는 교인들을 위로하는 것이다.

[9절]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저희가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사도 바울은 두기고와 함께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보내었다. 빌레몬서에 보면, 오네시모는 전에 도망친

종, 무익한 종이었으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받는 형제가 되었고(몬 16) 사도 바울에게 유익한 수종자가 된 자이었다(몬 11). 사도 바울은 본절에서 그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라고 증거한다. 아마 주인에게 손해를 끼쳤던 종이었던 그가 주 안에서 사랑받는 형제가 된 것이다.

[10-11절]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아네피시오스)(사촌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으며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저희는 할례당이라. 이들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役事)하는[일하는] 자들(동역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아리스다고는 특별히 바울과 함께 갇힌 일꾼이었다. 그는 바울과 함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었다. 마가는 바나바의 사촌이었다. 그는 전에 바울과 힘든 전도 여행을 하던 중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바울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으나(행 13:13; 15:37-38), 후에 바울의 인정과 사랑을 받은 인물이 되었다. 골로새 교인들은 그를 영접해야 했다. 그 다음, 유스도라 하는 예수가 언급되었다.

아리스다고, 마가, 유스도라 하는 예수, 이렇게 세 사람은 다 할례당 곧 할례 받은 순수한 유대인들이었다. ‘이들만’ 즉 유대인들 가운데는 이들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들이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바울의 동역자(同役者)들은 이와 같이 제한되어 있었다. 사도 바울의 주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보였던 많은 유대인들 중에서 아리스다고와 마가와 유스도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바울의 동역자들이었다. 그들은 독립 운동의 동지들보다, 6.25전쟁의 전우들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나라의 동역자들이었다.

그들은 바울에게 위로가 되었다. 그렇다. 복음 사역자에게 이보다 더 좋은 위로가 어디 있겠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바쳐진 복음의 일꾼들에게, 생각을 같이하고 뜻을 같이하고 함께 수고하는 자들을 가지는 것보다 더 나은 기쁨과 위로가 무엇이겠는가?

[12절] 그리스도(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니 저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

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페플레로메노이][온전하게 서기를 구하나니.

에바브라는 서신 초두에(1:7) 증거된 대로 골로새 교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준 일꾼이었다. 그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표현된다. ‘종’이라는 말은 순종을 나타낸다.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 항상 애써 기도했다. 이것은 특히 복음의 일꾼들의 일차적 사명이다. 담임목사와 장로들은 온 교회를 위해, 교사들과 구역 권찰들은 말은 반 학생들과 구역 식구들을 위해 항상 애써 기도해야 한다.

기도의 목표는 ‘그들이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게 서는 것이다. ‘하나님의 모든 뜻’이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부분적 깨달음과 지식, 부분적 믿음과 생활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의 모든 뜻에 대한 깨달음과 지식, 믿음과 생활을 가져야 함을 보인다.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게 서야 한다. 하나님의 모든 뜻은 신구약성경에 잘 계시되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구약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배우고 묵상해야 한다. 주께서 교회에 목사를 주신 목적은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다(엡 4:12). 목사들의 첫 번째 임무는 모든 성경을 충실히 강론함으로써 그 일을 이루는 것이다.

[13-15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거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눅바와 그 여자의[그외(전통사본)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사도 바울은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뿐 아니라,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 교인들을 위해서도 많이 수고함을 증거하였다. ‘눅바와 그의 집’이라는 전통사본 본문은 눅바가 남자임을 보인다. ‘그의 집에 있는 교회’라는 말은 교회 역사의 초기에는 교회 건물이 없이 가정집에서 모인 교회가 있었던 것을 증거한다. 로마서 16:5의 전통사본도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에 있는 교회’를 언급하였다.

[16절]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서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본문은 성경 읽기의 의무를 가르친다. 성경, 특히 사도들의 서신들은 우리가 읽어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함을 누리며 의로운 인격자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복된 선물이다. 사도 바울의 서신들은 한 지역 교회에 보내진 것이지만, 모든 교회들이 읽어야 할 하나님

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인간 저자들을 통해 주신 성경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진리의 교훈을 주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다.

[17-18절] 아킵보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나의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아킵보에게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이루라”고 권면하였다. 로마서 12:5-8에 보면, 주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후 각 사람의 재능과 은사에 따라 섬기는 직분, 가르치는 직분, 권면하고 위로하는 직분, 구제하고 공물을 베푸는 직분, 다스리는 직분 등을 주신다. 아킵보는 주 안에서 받은 직분, 곧 주께서 주신 은사와 직분을 잘 감당하고 완수해야 했다. 우리도 그러하다. 우리도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완수해야 한다. 우리는 어떻게 그 직분을 완수할 수 있는가? 우리는 성경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리고 주께서 주시는 지혜와 충성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우리는 복음을 위해 일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어야 한다. 아리스다고, 마가, 예수 유스도는 바울과 함께 로마 옥에 갇혀 있었다. 11절, “이들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함께 역사하는 [일하는] 자들[동역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일하며 충성하는 자들은 많지 않은 것 같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 일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어야 한다.

둘째로, 목회의 목표는 신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하게 서게 하는 것이다. 12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니 저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온전하게 서기를 구하나니.”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게 설 수 있는가? 그것은 성경책을 읽고 믿고 행함으로써이다. 디모데후서 3:16-17,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셋째로, 우리는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이루기 위해 조심해야 한다. 17절, “아킵보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재능과 은사에 따라 직분을 주신다. 우리는 우리의 짧은 생애에 주께서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해야 하고 장차 주 앞에 설 때에 잘했다고 칭찬을 듣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고 죽도록 충성해야 한다.

주일오후설교

일곱 대접 재앙 (2)

[계 16:12]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으매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여섯째 천사는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았는데, 그러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 9:13 이하의 여섯째 나팔 재앙과 같이, 유프라테스 강은 마지막 세계대전에 관련된 곳으로 예언되어 있다. 강물이 마른 것은 극심한 가뭄으로 인한 것일 것이다. 동방에서 오는 왕들은 아마 이란과 인도와 중국 등의 군대들을 가리킬 것이다. 여하튼, 유프라테스 강이 마름으로 동서양의 연합군 즉 온 세계의 연합군의 집결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본문의 예언은 중동에서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것을 보이는 것 같다.

[13절]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세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귀신들의 영(영들)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전능하신 하나님(KJV, NIV)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적그리스도의 나라의 활동은 악령들의 활동이다. ‘개구리 같은 세 더러운 영들’은 그들이 자기들의 주장을 개구리같이 시끄럽게 떠들어댈 것이나 실상은 거짓되고 더러운 영들임을 암시한다. 그 영들은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왔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말들은 사탄과 악령들의 활동이다. 이 귀신의 영들은 온 천하에 다니며 정치가들을 충동하여 연합군을 형성하게 할 것이다. ‘이적을 행하여’라는 말은 이 악령들의 활동은 신비적 활동을 동반함을 보인다. 우리는 신비주의와 은사주의를 조심해야 한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날’은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의 여러 곳들에서 ‘여호와와 날,’ ‘주의 날’로 묘사된 그 날, 곧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다. 그 날의 전쟁은 요한계시록 19장에 증거된 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의 전쟁을 가리킬지도 모른다. 19:11, 14, 19,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忠성)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15절]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

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재림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도적같이 오실 것이다. ‘도적같이’라는 말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뜻밖에도, 갑작스럽게 이루어질 것을 보인다. ‘깨어 있으라’는 말은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가리킨다. 그리스도인의 정상적 신앙생활이란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 계시된 대로 바르게 믿고 성경의 교훈대로 바르게 사는 것을 말한다. 그것은 경건하고 의롭고 선한 삶을 가리킨다. 바른 믿음은 바른 삶으로 나타난다. 구원받은 성도는 죄를 떠나고 의롭고 선하게 살게 되어 있다. 주 예수께서는 또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다. 성도의 옷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은 의(義)의 옷이다. 로마서 3:24,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救贖)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갈라디아서 3:27,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그 십자가의 의를 믿는 믿음을 지켜야 한다.

[16절] 세 영이(그개 히브리 음으로 아마겟돈(마게돈) [므깃도]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모으시더라).

‘세 영이 모았다’는 원문(쉬네가겐)은 ‘그가 모으셨다’라고 번역할 수 있고(KJV), 여기에 ‘그’는 하나님을 가리킨다고 본다. 인류의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동방의 왕들을 모으실 것이다. 므깃도는 팔레스틴 북부, 갈릴리 호수 서편으로서 역사상 여러 전쟁이 일어났던 곳이다. 그곳은 경건한 유다 왕 요시아가 애굽 군대를 맞아 싸우다가 전사한 곳이며 그 일 후에 유다 왕국이 급속히 몰락하게 되었다고 보인다. 아마겟돈 전쟁의 예언은 인류의 마지막 전쟁이 이스라엘 땅에서 이루어질 것을 보이는 것 같다. 여섯째 대접 재앙은 아마겟돈 전쟁을 위한 준비를 예언한다. 그 전쟁 자체는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의 큰 음녀 곧 바벨론의 멸망과 관계되고 특히 19장에 백마 타고 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될 것이라고 본다.

[17-21절]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으매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음으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다.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매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중수(무게)가 한 달란트(약 30킬로그램)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박재 [우박 재앙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훼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러라.

일곱째 천사는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았다. 그때 성전에서부터 ‘되었다’는 큰 음성이 들렸다. 그것은 ‘다 이루어졌다’는 뜻이다.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이 일곱째 대접의 재앙으로 다 이루어졌다는 뜻이다. 일곱째 대접의 재앙은 번개와 뇌성과 음성들을 동반한 큰 지진과 우박의 재앙이다. 그 지진은 역사상 가장 큰 지진이 될 것이다.

큰 성 바벨론, 즉 적그리스도 나라의 수도는 그 지진으로 인하여 세 갈래로 갈라지고 그 외의 지구의 모든 성들도 그 지진으로 인해 무너지게 된다.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악들을 안 보시는 듯할지라도 다 보시고 아시고 마지막 날에 다 보복하시는 것을 증거한다. 하나님 앞에 피할 수 있는 죄인은 아무도 없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선악의 행위를 다 보시고 기억하시고 보응하신다. 이 마지막 큰 지진으로 인해 섬들과 산들도 부서지고 가라앉고 사라질 것이다. 또 큰 우박이 내릴 것인데, 그 우박의 무게는 한 달란트 즉 약 30kg이나 될 것이다. 이런 무게의 큰 우박이 떨어지니 그 재난이 얼마나 극심할 것인가? 그러나 사람들은 역시 회개치 않고 하나님을 훼방하기만 할 것이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우리는 적그리스도 나라와 배교한 교회를 조심해야 한다. 요한계시록 13장의 첫 번째 짐승은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상징했다. 그 나라는 온 세계의 성도들을 핍박하는 독재 국가일 것이다. 또 두 번째 짐승은 거짓 선지자로 묘사되는데, 그것은 배교한 교회를 상징했다고 본다. 특히 이 배교한 교회는 이적을 행하는 은사주의 교회이다. 기적들을 행하는 은사주의 목사들의 나타남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징조로 성경에 예언된 바이다(마 24:24; 살후 29-11). 우리는 배교한 은사주의 목사들과 교회들을 조심해야 한다.

둘째로, 우리는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것은 역사적 기독교 신앙, 성경적 신앙, 바른 신앙, 속죄신앙, 옛신앙을 잘 지키는 것을 말한다. 우리가 역사적 기독교 신앙, 성경적 신앙, 바른 신앙, 속죄신앙, 옛신앙을 끝까지 지키고 성경 교훈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힘쓰는 것이 깨어 자기 옷을 지키는 것이다.

셋째로, 우리는 회개할 만한 때에 열심으로 회개해야 한다. 사람이 회개하려고 해도 회개가 되지 않는 때가 올 것이다. 죄인들은 그런 때가 오기 전에 힘써 회개해야 한다. 이사야 55:6-7,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

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수요일 설교 **언약의 사자께서 오심**

[말 3:1] 만군의 여호와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主)가 홀연히 그 전(殿)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2-4절]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이는] 그는[그]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쯧물과 같을 것이라[것임]이래.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케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케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윈의 안에서[KJV, NASB, NIV]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5절]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술수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삯에 대하여 억울케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케 하며 나를 경외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6절] [이는] 나 여호와는 변역지[변하지] 아니하니나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이,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히 영접해야 한다. 그는 언약의 사자이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나타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그를 증거하며 사람들이 그를 맞을 준비를 하게 하셨다. 이제 우리는 그를 의지하며 사랑하며 그의 모든 교훈을 순종하고 사람들에게 그를 증거해야 한다.

둘째로, 우리는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모든 죄를 다 회개하고 멀리해야 한다. 재림하시는 주께서는 모든 사람을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다. 회개치 않는 악인들은 지옥 판결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도 그는 때때로 악인들에게 벌을 내리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죄악들을 버려야 하며, 특히 위상숭배, 돈 사랑, 거짓된 신비 추구, 살인, 미움, 음행, 간음, 동성애, 거짓 맹세, 거짓말, 온갖 악행들,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압제함 등을 다 버리고 멀리해야 한다.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과 그리스도의 구속과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의 은혜의 불변하심을 감사해야 한다. 로마서 11:29,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주 예수께서는 그를 믿는 양들에 대해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다(요 10:28).